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손가락 젓가락 생각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에 앉는 일이 고역이었다. 왼손잡이라 못마땅해 하는 어른들 표정을 읽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절에는 억지로라도 수저를 오른손으로 바꿔 잡기도 했다. 그래 봐야 나중에 머리가 굽어지면서 슬그머니 원래 손으로 옮겨 갔지만. 대신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 배웠다. 젓가락질은 끝부분이 뾰스 있게 다 물러지도록 직선·상하 운동을 잘해야 하는데, 왼손 오른손 왔다 갔다 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었다.

서양에 나가서 초밥집이나 중국집에 틀을 많이 많았다. 그때마다 실나의 손님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 저 동양인이(오리지널 아닌가!) 과연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듯했다. 아무리 젓가락질 잘 못 하는 사람일지언정, 서양인보다 못 할소냐? 의지의 힘으로 멋져 보이게 젓가락질을 하곤 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런 식당에서는 대개 나무 젓가락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젓가락의 나라인 아시아에서 손가락이 '주'(主)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알게 되었다. 일본은 손가락이 있었지만 점차 사용 빈도가 줄다가 일상의 정찬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다. 한 번은 일본의 식당에서 스푼을 달라니까 당황하면서 첫손가락을 주는 식당도 있었다. 손님용 손가락은 아예 없었다. 일본인은 국물도 젓가락만으로 먹는다. 어떻게? 들고 마시면서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끌어와 입으로 넣기는 방식을 쓴다.

일본의 식사에서 손가락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외래 음식이다. 카레, 라면(국물 떠먹기용), 한식, 스파게티 같은 음식에서만 손가락이 나온다. 라면에 손가락이 딸려 나오는 건 그것이 중국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특별히 손가락이 주가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스테인리스 수저를 쓴다. 99퍼센트다. 외식할 때는 종종 나무젓가락을 만날 수 있었는데 폐기물의 부담으로 일회용을 금지하면서 만나기 어렵게 됐다. (지금은 코로나로 임시 사용이 가능하다) 스테인리스가 선보이기 전에는 양은 젓가락도 있었다. 양은은 일제강점기 무렵에 들어온 이후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가벼운 데다가 세척도 편하고 내구성도 좋았다. 오죽하면 양은(洋銀)이었겠는가. 그야말로 은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아주 싼 금속이 되고 말았지만.

그때 양은과 경쟁하던 것이 놋쇠였다. 무겁고 다루기 힘들지만 오랫동안 '있는 집' '양반집'의 식기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껴 사용할 뻔했다. 지금은 제사상에는 놋쇠 수저를 쓰는 집이 많다. 제사는 대체로 고인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며, 고래의 것을 즐겨 쓴다. 놋쇠는 부귀의 상징인 금색이어서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다는 말도 있다.

놋쇠가 일반 민가까지 널리 퍼진 것은 조선 후기다. 신분 세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국 초기 극소수였던 양반이 70퍼센트를 넘나들 정도로 증가하던 시기였다. 양반이 되었으면 나무 수저 대신에 놋쇠를 써야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도나도 수저만은 놋쇠를 쓰는 게 당연시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 민족만 동양의 메이지 삼국 중에서 금속 수저를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지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분야는 민속학이나 사학에서도 뚜렷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수많은 유물 중에서 수저도 전시되어 있다. 모든 수저가 금속이다. 나무는 찾아서 현재까지 남아서 출토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귀한 출토품이

아니다. 또 그 시대에는 수저의 재료와 사용으로 부귀와 계층을 나누었다.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대부분 왕가의 터라 귀한 수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전통적인 밥상에 수저가 아예 없지만, 과거 귀족들은 손가락을 사용했다고 한다. 아마나 손가락을 쓸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으로 자연스레 손가락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젓가락·손가락의 '가락'은 인체의 손가락처럼 '가늘고 긴 도막'을 의미한다. 수저는 인체의 일부처럼 부리는 도구였다. 그만큼 애정을 담아 다루었다. 집안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각의 수저가 대개 있어서 각별히 구별하고 공들여 대했다. 제사상에서 어른들의 손이 떨리는 짐목의 순간은 때(밥)를 덜어 땅에 날거나, 국수와 찬을 집어 옮기는 동작을 할 때다. 고인의 영혼이 깃든 수저라 긴장해서일 게다.

손가락을 우선시 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손가락은 아주 정교하게 발달했다. 어떤 음식을 자를 때 쓸 수 있도록 양옆에 날이 있다. 자세히 보면 역시 찬을 찍어 자를 수 있도록 맨 위 정수리 부분은 붓금이 예각으로 솟아 있다. 수저의 머리 부분을 인체에 대입하여 사람의 정수리가 솟은 것을 모방하여 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새 나오는 손가락은 이런 기능이 점차 사라져서인지 아예 날도 정수리도 없는 게 많다.

밥이 찧기가 많아지고, 밥상 예절도 유아무아되는 세상인어서 그런지,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식당에 손가락을 같이 진열해 놓아도 손도 안 대고 식사를 마친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 것의 진수를 담고 있는 손가락이 점차 홀대를 받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 갈출 수 없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가스라이팅'은 사랑 아닌 학대다



한규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최근 모 연예인에 대한 가십을 비롯해 데이트 폭력 등과 연관돼 자주 접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 감각이나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 중에서도 '누군가와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 '웃자립 제한' 등의 통제 행동이 7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통제 행동은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자식·친구 등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조차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양은 건 것이 중국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자기 의심, 자존감 하락 등의 심리적 불안 상태로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결국 가해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과 함께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가스라이팅은 정신병명이 아닌 심리학적 용어로 1944년 조지 쿠거 감독의 영화 '가스등'(gas light)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 아내를 정신 착란으로 몰고 가는 내용에서 유래했다. 영화의 제목 '가스등'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정신적 학대를 상징한다.

이러한 욕구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타인을 조종해 실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우와 단지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소시오패스적 성향의 사람이 금전적 또는 물리적 이득을 얻고자 타인을 세뇌하는 경우라면 실제적 이득이 목적이다. 이는 영화 '가스등'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으로써 스스로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다.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애적 욕구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기애적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장애라 한다.

'가스라이팅'은 부모·자녀, 상사·부하 등 불균형한 권력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데 부부나 연인·친구 관

계에서도 서서히 불균형한 권력 상황이 구축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가해자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나 정도 되니까 너를 받아준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길들이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구도가 된다.

이때 가해자는 부족하고 못한 피해자를 자신이 받아 주었다는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하고 심지어 스스로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비난으로 인해 자기 의심을 지속하고, 결국 가해자가 자신을 받아 주었다는 만족감으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가스라이팅'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피해자, 심지어 가해자도 가스라이팅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다.

평소 자신이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느라 늘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낀다면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자존감 상실, 심한 경우 인격의 황폐화까지도 경험하면서 괴로운 상황에서도 다시 가해자를 찾거나 또 다른 가스라이팅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과적 상담·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고 바른 소리를 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고

안전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영국의 동물학자 테즈먼드 모리스의 명저 '털 없는 원숭이'는 우리 인간종의 행동 양식을, 신랄하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과학적 보고서이다. 모리스의 분석은 다음 질문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그저 뇌 큰 원숭이에 불과한가? 인간은 재와 진흙으로 버무린 유기물 덩어리 속에 그저 몇 개 별 부스스리만을 간직한 존재인가. 필멸자인 주제에 신이 되려는 교만한 야심가인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겸손한 탐험가인가.

맹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네 가지로 '약자에 대한 연민, 부끄러움을 아는 것, 양보하는 자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꿈틀 거리는 존재'라고 하였다. 꿈틀거린다는 것은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거나, 각성하여 주체적으로 실존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동물과 특히 다른 점은 무엇일

까. 그중 하나가 상상력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나 전자결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4단계 자율주행차나 하늘을 나는 '플라잉 카'의 실용화도 그리 멀지 않았다. 신축 아파트는 스마트 홈,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새로 짓는 도시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 중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나 테드 창의 SF소설에 나오는 복제인간의 출현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전부 기술적 상상력 혹은 과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렇듯 기술적 상상력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회적 상상력 혹은 집단적 상상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가령 작업 환경이 위험한 공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명 사고가 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는 데 사회적 상상력이 동원된다. 사회 속 인간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안전 조치가 미흡한 철거 작업은 매우 위험하고, 음주 운전을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대폭 높아지며,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은 교통사고를 초래한다. 집단 모임에서 감염병 확산이 더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인과 따위가 그렇다. 사회적 상상력은 구성원 서로 간 영향을 끼치는 법령·정책·단속 등 각종 시스템과 구성원의 보편적 문제 인식과 결부된다. 빈곤한 상상력,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 먼 상상력은 안일과 무책임으로 이어져 결국 소중한 인명을 해치게 된다.

사회적 상상력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선견(先見)하고 맞춤형 대응함으로써 유용하다. 아

직 막치지 않은 재해를 근심하여 대비하는 직원은 훌륭하다. 탁월한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결정 전에 그 작용과 부작용을 정확히 도출 또는 예견해 낸다. 뛰어난 리더도 그렇다. 이러한 사회적 상상력은 종합적 분석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지를 보듬는 것까지 포함한다. 요컨대 사회적 상상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하고, 사고 발생과 관련된 '다면적 미리 보기'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으로 작동한다.

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하기 전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인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또 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불법 주차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간은 상상함으로써 동물과 다를 뿐 아니라 기술적·사회적 상상력의 총합을 통해 진화한다. 사회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꾸준히 갱신해야 하며, 지역 각 공동체의 합입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상상력은 약자 보호,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행복의 실제적 실현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배우고 공부하는 인간 '호모 에루디티오'와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포티쿠스'의 결합으로 촉발된다. 사회적 상상력의 확장과 연대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가 바리소스 가능하다.

社說

'통신선 복원' 남북 교류 재개로 이어지길

1년 넘게 끊겼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됐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그제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기계실 간 통화를 가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 대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를 했다. 남북 군당국도 서해지구군 통신선을 통해 시험 통화를 했다. 남북은 예전처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오전·오후 두 번씩 정기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으며,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

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통신선 복원과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확인한 뒤 "온겨레는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남북 관계가 오랜 고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남북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로 소통이 재개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어렵사리 대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부터 코로나 19 방역, 이산가족 상봉, 식량·비료를 비롯한 민생 분야 협력 등 그동안 중단된 다양한 분야의 협의를 이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수인 만큼 이를 촉진할 중재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에 폭력까지 학원 보내기 무섭다

학원에 다니는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교육당국의 관심이 방역에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학원생을 상대로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 중에는 학원생을 보호해야 할 학원 원장들도 있어 충격적이다.

광주 남구의 A학원 원장은 최근 자신의 학원 수강생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의 C학원 원장은 수강생인 여고생 제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구의 D보습학원 원장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중학생 수강생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코로나로 일선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설 학원은 대면 수업

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 당국의 현장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학원 관계자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만 44건에 달한 것을 보면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느슨한 틈을 타고 학원들의 탈법 운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 조치를 받은 광주 학원은 전체의 21.4%인 1009 곳이나 됐다.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가하면 고습시간을 위반한 학원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꺼리지는 판에 학원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어찌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교육 당국은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녀는 윤 초시네 증선녀였죠/ 소녀는 소녀를 처음 본 곳은 개울가였죠."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흥얼거리 본 노래 '소나기'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였을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처음 접한 '초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기억만은 남아 있다. 그러나 노래의 모티브가 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읽기 훨씬 전부터 들어온 셈이다. 노랫말에 나오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 물어 달라'는 소녀의 말도 뇌리에 남아 있다.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해 준 것은 최유준·장상은이 쓴 '모모는 철부지' -전일방송 대화가요제 의 기억(책과 생활)이라는 책이다. 광주 발(發) 히트곡 등 '로컬 대중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읽다 보면 저절로 추억 속에 잠기게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김중철의 자작곡 '소나기'는 1979년 '제2회 전일방송 대화가요제' 대상 수상곡이다. 에필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에서 영감을 얻은 1회 대상곡 '모모'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전국구 히트곡'이었다.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

다'라는 대목은 앨범 발매 당시 검열을 고려해 수정된 부분이었다. 원래대로 '모모는 말라비틀어진 눈물자국이다'라고 불러 보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빙빙빙 돌아라 내 팽이야'라고 노래하는 허성관의 '빙빙방'은 3회 대상곡이다. 팽이를 돌리려면 채찍을 치는 게 당연한 일임에도 '채찍 맞은 아픔'이라는 가사가 이상하며 노래를 틀어 주지 않아 힘들었다는 하씨의 인터뷰에서 헛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제5회 MBC 대화가요제 대

상곡 정오차의 '바윗돌'도 마찬가지다. 방송에 출연한 그가 '광주에서 죽은 친구를 추모한 노래'고, 바윗돌은 친구의 묘비를 뜻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금지곡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던 시대였다.

조에는 전남대 그룹사운드 '로터스'와 조선대의 '캐러밴' 등 광주의 노래와 가수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마침 전일빌딩 245에서는 '광주 노래 전 시회'도 열리고 있으니 책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2-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